늘 꿈꾸던 ‘되고 싶은 나’ 되기

(예레미야 10:1~25)

1.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3.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4.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5.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늘 꿈꾸던 ‘되고 싶은 나’ 되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늘 꿈꾸던 ‘되고 싶은 나’ 되기

최근에 “대립군(代立軍)”이라는 영화의 인터뷰 기사를 읽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군역을 대신 치르던 대립군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배우 이정재 씨가 대립군의 수장인 토우 역을 맡았습니다. 영화 개봉에 즈음해서 기자가 이정재 씨에게 “절벽을 등지고 싸우는 자는 이길 수 없다”라는 토우의 대사를 인용하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읽었던 무협소설에서도 비슷한 대사가 등장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백 명이 너를 공격하고 천 명이 너를 공격하더라도 절벽을 등지고 싸우면 단 세 사람과 싸우는 것과 같다”라는 대사였습니다. 절벽을 등지고 있을 때에는 등을 내줄 수 없으니 항상 앞과 좌우의 세 명과만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인터뷰로 돌아가서 기자는 이러한 대사를 언급하며 “이정재 씨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있나요?”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정재 씨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작품을 선택할 때부터 오는 두려움이네요.”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영화를 할까 말까, 한다면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두려움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또 개봉을 앞둔 상황에서는 관객들이 우리의 영화를 어떻게 봐주실 것인가가 배우들이 갖는 두려움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한 마디로 흥행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려움이 있느냐?”라는 질

문에 “배우들은 정확한 은퇴시기를 알 수 없는 것이 두렵다”라고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해고 통보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문득 일이 없어지고서야 자신이 은퇴하게 되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자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정재 씨가 멋진 대답을 합니다. “두려움 자체를 에너지로 삼습니다. 대중의 사랑과 두려움은 하나로 맞닿아 있으니까요.”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대중의 사랑을 못 받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라는 것이고, 대중의 사랑을 받기 위해 분발해서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쫓기기 때문에 분발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쫓겨서 분발하게 되는 모습은 우리 삶에도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관계를 계속해나가고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함일 경우가 많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친구에게 전화를 하지만 실상은 두려움에 쫓기며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친구에게 전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도 그 내면에는 두려움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 대립군의 촬영장면을 전지적 작가시점에서 바라본다고 상상해봅니다. 감독 작가 배우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대중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분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분발할 수 있는 이유는 대중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쫓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심각할 정도로 우리의 삶에 관여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언론이나 재벌들도 두려움에 쫓기고 있습니다. 방송국은 시청률이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재벌들은 회사의 상품이 대중으로부터 외면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두려움에 쫓기고 있는 것은 본래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고 합니다. 두려움에 쫓기는 동안에는 내가 아직 세상이라는 무대에 등장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셨던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에 대한 답이 나타납니다. 본문 2절에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5절에서는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하늘의 징조나 우상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월성신을 숭배하는 이유는 천체나 기상의 변화를 통해서 국가나 개인의 운명을 알아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혜성이나 일식 혹은 월식 같은 자연현상을 통해 인생길과 국가의 장래를 점치며 두려워했는데, 이러한 이방의 종교적 관습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

니다.
본문 23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이정재 씨가 말한 배우의 두려움이 흥행의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것처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앞날에 대한 무지에서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배우는 흥행이 안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보통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이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방송국은 시청률이 떨어질까 두려워하고 대기업은 만든 상품이 대중들에게 외면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정치가들은 대중에게 외면 받고 선거에서 낙마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목사님들은 교인이 오지 않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인간은 이러한 두려움이라는 제1의 본성으로부터 제2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자신의 길을 알고 싶어 하고 지배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욕망을 갖습니다. 두려움이 인생길에 대한 지배욕망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언급하는 우상숭배의 원인도 이와 같습니다. 14~15절을 보면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이라고 하였습니다.
우상이 말을 못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와 미신이 학식의 유무나 신분이나 지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점치고 예언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예언 기도한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미래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열정적이고 야망이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도 그 내면을 살펴보면 그만큼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이유도 그 사람이 없는 세상을 상상만 해도 너무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열정과 정열은 두려움의 뒷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결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본래 모습이 아닙니다. 육체적 생일은 있지만 진정한 나의 탄생은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원인이 무엇인지 시간여행을 해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태초의 시간으로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첫 사람 아담과 하와는 물론이고 빛과 삼라만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봅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것일 수도 있고 자녀가 잘못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사업문제나 노후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두려움은 여러분의 마음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맞대면하는 증거입니다.

길거리에서 쥐나 징그러운 뱀을 보면 소름이 끼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이 안 풀릴 때에, 건강이 안 좋다는 결과를 받았을 때에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마음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마주하게 되었기 때문에 생겨난 느낌입니다. 단순히 사업문제로 말미암아 생겨난 두려움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 크기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마음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 자리를 완전히 채우실 때에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물러가게 됩니다. 여기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존재할 때에 드는 느낌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그 자체로 계속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모습을 바꿉니다. 원을 달러로 환전하는 것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사업이 잘될 가능성도 있고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서는 두려움이 사업이 안 될 같다는 생각으로 환전됩니다. 암 검진을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암은 두려움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마음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들어차서 느껴지는 두려움이 건강에 대한 걱정으로 환전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배우 이정재 씨가 대중의 사랑을 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설령 대중에게 외면 받는 영화를 찍게 되더라도 애초에 그것은 두려움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마음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부터 생겨난 두려움이 영화의 흥행이라는 가치로 환전되었을 뿐입니다.

인간은 본래 이 세상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설령 육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두려워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삶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심으로 인해 마음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생겨난 두려움이 세상의 것들로 환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몸이 죽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사업이 안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흥행이 안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교인이 안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장사가 안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대학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동안에는 두려움은 극복될 수 없습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앞에서 본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두 구절을 합쳐서 이해하면 선민들이 가져야 할 분깃은 하나님뿐이시라는 내용이 됩니다.

지난 말씀에서 욕심을 뜻하는 히브리어 '바차'라는 단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바차는 전체 중에서 일부를 내 것으로 끊어냄을 의미합니다. 본래 세상은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으로 허락된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십니다. 그렇기에 본문에서 하나님을 분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녀도 사업도 나의 분깃이 아닙니다. 본래 내 것이 아닌 자녀나 사업을 나의 분깃으로 여김이 바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마음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자리를 잡게 되고 그로 인해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자녀 혹은 사업이나 건강에 대한 염려들로 환전시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두려움을 극복하자'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을 가지지 않는 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두려움에 쫓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셨던 나는 생일을 맞이하지도 못한 채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본래의 나는 두려움이 없는 나입니다. 사업이 안 되어도, 내 몸이 죽어도 그것은 두려움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이유는 하나님의 자리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을 세상의 어떤 일들과 환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참수를 앞두고도 천사가 옆구리를 발로 찰 정도로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풍랑 만난 배 위에서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과 실라가 매질을 당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손끝만 베어도 덧날까봐 걱정합니다. 두려움을 걱정으로 환산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버렸습니다. 내 것으로 추구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 뿐이십니다.
타락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갖는 길은 두려움이 느껴질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수시로 어떠한 대상들에 대한 두려움이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라는 형태로 환전되어 찾아옵니다. 이러한 대상들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가짜 두려움의 이유들에 대해서 죽고 일단 내 것을 찾고 봅니다. 내 것으로 허락된 유일한 나의 기업, 나의 분깃이신 하나님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갖는 길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과 연합하게 되면 내 마음은 하늘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주님 안에서 내 마음도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으니 세상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함으로 환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돌에 맞고 화형 당하고 사자 밥이 되는 순교의 순간에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본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어떤 일도 두려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러한 인간을 타락시켜서 마음에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담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부터 생겨난 두려움을 세상에 대한 일로 환전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습관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죽을 때까지 두려움에서 쫓기며 사는 삶이 계속될 뿐입니다.

정리해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움에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음은 하나님 크기로 비어있기에 무엇인가로 채워야만 합니다. 비어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에 무엇으로라도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채워보려 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건강도 담아보고 노후를 위한 재산을 담아보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추구하는 대상들이 마음의 다른 신이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세상일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우상이 결코 대답해주는 존재가 아님을 앎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쫓기는 마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되어서 열정과 정열을 바치며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정재 씨가 대중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적으로 배우 노릇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너지를 바꾸어야 합니다. 두려움이 에너지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해 생겨난 만족과 기쁨으로 배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축구 선수라면 골을 넣지 못할까 두려움에 쫓겨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만족 속에서 달리면 됩니다. 이것이 본래의 나로써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두려움을 세상일로 환전하려는 습성이 계속해서 작동합니다. 이것을 십자가에서 근절시켜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이 세상에 대해 죽었다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붙잡고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것은 두려움에 쫓기는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에 쫓기는 상태에서는 본래의 나로써 태어날 수조차 없습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스스로 깨우쳐야 합니다. ‘이 두려움은 일이 안 풀려서 생기는 두려움이 아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만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고 그로인해 생겨난 두려움이 세상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환전되고 있다’라는 것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염려가 될 때마다 이것이 두려움의 환전임을 깨닫고 십자가를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셔 들여서 두려움이 없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본래 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면 됩

니다.
이렇게 나의 본래 모습을 되찾지 못한다면 나의 인생은 두려움에 쫓기다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는 두려움을 근절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두려움을 환전하는 습관을 죽이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설령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두려움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마음이 두려움을 환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로 본래의 나를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래의 나는 두려움에 쫓기지 않는 나입니다. 삶을 만족과 기쁨으로 출발하는 나입니다. 직업이 무엇이든 하나님으로 인해 생겨난 만족과 기쁨을 표현하는 나로써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함께 죽었음을 고백함을 통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항상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게 해주시고, 진정한 나로써 다시 태어나서 만족과 기쁨과 평강이 삶의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